

광주영화 4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오른다

작년 광주영화학교 출신 작품 이경호 감독 '혼자' 등 선보여 5월1~10일... 영화 선순환 기대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지난해 광주영화학교 출신 감독들의 작품 4편이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진출해 상영된다고 10일 밝혔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광주영화는 한국경쟁 섹션의 '양양(양주연 감독)', 코리안시네마 섹션의 '혼자(이경호 감독)', 특별상영:지역 독립영화 쇼케이스의 '기억의 집(이현욱 감독)', '올리브(김소영 감독)'이다.

영화 '양양'은 어느 겨울밤, 주연이 아빠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아빠는 술에 취해 허가 꼬인 목소리로 주연에게 "고모처럼 되지 말라"는 말을 남긴다. 그날 40년 전 자살한 고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주연은 가족의 수치스러운 비밀이 된 고모 흔적을 추적한다. 주연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지워져 온 여성들을 기억하며 애니메이션을 통해 고모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간다.

영화 '혼자'는 시각 장애를 가지게 된 선미가 가족과 싸우고 갑작스런 독립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선배 언니의 북카페에서 일하던 어느날, 유난히 말이 없는 손님이 찾아오는데...

영화 '기억의 집'은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이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주인공인 '나'는 사진속 집들을 찾아가 보는데 이 여정을 통해 가족의 사소한 비밀과 잊고 지내던 나의 유년시절 기억을 하나둘 되살려낸다. 그 기억들은 나의 이웃과 광주의 공간들에 대한 기억으로 확장돼 간다.

영화 '올리브'는 육아휴직 중인 선주를 대신해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은하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불가피하게 자료를 받으러 선주를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은하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선주는 은하에게 함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한다.

이들 감독은 모두 2023년 광주영화학교 5회 강사이자 수강생이다. '양양'을 연출한 양주연 감독은 다큐멘터리 수업의 강사였으며 '혼자'를 연출한 이경호 감독은 단편영화 제작 기초반 강사였다. '기억의 집'을 연출한 이현욱 감독은 다큐멘터리 수업의 수강생이었으며 '올리브'를 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초청된 이경호 감독의 작품 '혼자' 스틸컷.

전주국제영화제 제공

출한 김소영 감독은 2023 광주청소년영화학교를 맡아 수업을 진행했다.

코리안시네마 부문에서 상영되는 이경호 감독의 '혼자'는 감독은 물론 이세진 프로듀서, 백종록 제작실장, 허지은 조감독, 오태승 촬영·조명 등 스태프들이 전부 광주를 기반으로 창작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독립영화협회는 올해 6회째 진행되고 있는 '광주영화학교'가 지역영화창·제작자들의 활동 근거가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창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뤘다고 보고 있다.

광주 유일의 영화 교육 프로그램인 '광주영화학교'는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올해 6회째 운영하고 있다. 5월 첫 수업인 '영화문화 기획자 양성과정' 신청이 시작되고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은 6월 모집해 7~8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훈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

장은 "성과를 내고 있는 광주영화가 창작 선순환에 안착하려면 지역 영화인들의 창작과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고 있는 광주영화학교 운영이 필수적이다"며 "지역영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개최될 광주영화학교에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1~10일 '우리는 늘 선을 넘는다' 주제로 열린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ACC '예술가·창작자 성장' 역량강화 지원

5~11월 5개 분야 워크숍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예술가와 창작자의 첨단 기술 활용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ACC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진행되는 '역량강화 과정'은 △영상 창작을 위한 '언리얼 엔진 워크숍'(5월) △정각 매체가 지닌 기본 지식과 개념을 알아보는 '사운드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사운드 A to Z'(6월) △'언리얼 엔진 부트 캠프: 오디오 비주얼 라이트 쇼'(7월) △인공지능의 속성을 이해해보는 '인공지능 탐색 워크숍(8월) △언리얼 엔진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가상 아바타 제작 방법을 배우는 '가상 아바타, 인간의 말과 행동을 품다'(11월) 등 5개 문화기술 워크숍으로 구성돼 있다.

'역량강화 과정' 중 이번 워크숍의 첫 번째 교육은 오는 5월10일부터 3주 간(9차시) 진행되는 '영상 창작을 위한 언리얼 엔진 워크숍'이다. '언리얼 엔진'의

기본 기능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초 과정으로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영상 작품을 제작하고픈 창작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언리얼 엔진'은 고품질의 상호 작용성을 기반으로 평면 및 입체 콘텐츠를 짧은 시간 안에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 게임과 같은 상호 작용형 콘텐츠 제작 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구현,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고품질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전문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교육 수요생들의 영상 창작 작품은 ACC 하늘마당 미디어큐브에 상영할 예정이다.

집중적인 수업 진행과 타 지역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광주 외 지역 거주자에게는 교육기간 중 숙소를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교육비는 6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합창단 토요일상설공연 '성악가와 세상의 음악'

20일 광주 공연마루 무대 마련

광주예술의전당이 매주 토요일 광주 공연마루에서 '토요일상설공연'을 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립합창단이 오는 20일 '성악가와 세상의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합창 무대를 준비했다. 한국·이탈리아·러시아 등 가곡과 성악가들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이날 '메조소프라노'부터 '소프라노', '카운터테너', '바리톤' 그리고 '베이스'까지 다양한 음역대의 성악가들이 부를 수 있는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합창단 이준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공연의 시작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호진 작곡가의 대표곡 '사랑의 꿈'을 소프라노 김지나의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와 함께 시작되고, 테너 김원태가 이탈리아 가곡인 Sogno(꿈)을, 바리톤 윤찬성이 러시아 가곡인 'Net, tol'ko tot, kto znal(다만,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를, 가사가 없는 성악곡으로 유명한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를 카운터 테너 김대성이 풍성한 음역대로 독창한다. 미국 가곡인 'Amor'는 메조소프라노 김



광주시립합창단이 오는 20일 광주예술의전당 토요일상설공연 무대에 선다.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혜진의 독창으로 세계여행 같은 첫 번째 무대가 끝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도 역시 독창으로 이어지는데, 오즈의 마법사 OST로 유명한 'Over The Rainbow(무지개 넘어)'를 메조 소프라노 백미화가 선보인다. 이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OST '이룰 수 없는 꿈'을 바리톤 김창식의 묵직한 울림으로 부른다. 카바레 상송인 '유칼리(Youkali)'는 메조소프라노 오지영이, 팝가수 셸린디온과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 리의 듀엣곡으로 유명한 'The prayer'를 바리톤 손승범의 무대로 독창곡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혼성 2중창 곡은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대표곡으로 익숙한 'Time to say Goodbye(작별을 고향 시간이에요)'를 소프라노 김은혜와 테너 유정석의 듀엣으로 시작된다. 연주의 마지막은 무반주 전체 합창곡으로 'I Sing, You Sing'과 모차르트의 'Symphony no.40'을 합창단 전단원의 무대로 막을 내린다.

도선인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제4회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전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제4회 호남학산책 원고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호남학산책은 수신을 원하는 누구나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호남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소개받는 사업이다. 현재 1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속의 재발견, 명시초대석, 풍경의 기억, 맛기행, 고문서와 옛 편지, 미지의 초상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원고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의 문화·예술·역사·

명소 등에 대한 수기나 칼럼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kamjabong@hiks.or.kr) 및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당선작은 '호남학산책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발송된다. 시상금은 △대상(1편) 200만원 △최우수상(1편) 150만원 △우수상(1편) 100만원 △장려상(1편) 50만원이다. **최동환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청소년 홍보소통단 '루체스타' 단원 모집

21일까지 초4~고교생 대상

국립광주과학관은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이자 과학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수행할 루체스타 제8기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과학을 사랑하는 호남권 청소년(초등 4~고교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100명의 단원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다.

국립광주과학관 빛나는 별을 의미하는

루체스타는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제8기를 맞이했다. 호남권역 대표 청소년 대외활동으로 △과학관 전시·교육 등의 행사 참여와 홍보활동 △과학실험, 콘텐츠 제작 등의 과학문화 확산 활동 △콘테스트 참여 등이 있다.

루체스타 단원에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특별기획전 무료 이용(월1회, 동반 3인) △1일 교육프로그램 무료 이용(월 1회, 단원 한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

다. 또 △봉사활동 실적 인정 △연말 우수활동 단원 선정 시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명, 광주시장상 1명, 국립광주과학관장상 10명) 등 대외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모집은 이메일(lucestar@sciencecenter.or.kr)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문의는 국립광주과학관 홍보협력실(062-960-6172)로 하면 된다.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